

# 교육·생태가 공생하는 현장, 강진만에서 배우는 자연의 가치

## 전남도교육청·강진교육청 협업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대

아이들이 배우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강진만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생태축제로 새롭게 꾸며진다.

올해 축제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생태축제'를 주제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진교육지원청이 함께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자연 속에서 배우고 놀며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맞춤형 교육축제'로 운영된다.

먼저 아이들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자극할 '생태탐사 브이로그 공모전'은 10월 20일까지 참가 영상을 접수한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팀(2~5명)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의 숲이

나 하천, 바다 등 생태자원을 탐사하며 느낀 점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26일 발표 예정이며, 10월 30일 시상식을 통해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남도교육감상과 강진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강진교육지원청교육감상이 각각 수여된다.

10월 30일에 진행되는 '생태환경 독서골든벨' 역시 어린이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9월 17일부터 선착순 100명을 모집, 전남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에 지정된 도서 세 권을 읽고, 축제 현장에서 퀴즈를 풀며 경쟁을 펼친다. 10월 30일 강진만 생태공원 무대에서 진행되는 본 대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며 '벨을 울리는'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대회 후에는 시상식이 열려, 대상은 전남도교육감상, 최우수상은 강진군수상,



우수상은 강진교육장상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강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강진 공생한마당'에서는 AI 오목 로봇 체험, 플라스틱 사출 체험, 이동 과학버스 4D 영상 체험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래형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전남생명과학고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베트남 음식 만들기,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등도 마련되어 아이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케이팝 데몬헌터스 작호도 호랑이 아크릴 키링 만들기' 체험은 한국민화 뮤지엄과 협업으로 운영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생의 길 프로젝트 전시회'에서는 전라남도 초·중·고 생태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생태지도와 동아리 활동 산출물이 전시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환경 메시지를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준비 한창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4일에 개막하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20일 "올해 제2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며 "화려한 국화의 향기와 마법 같은 공간 연출로 가득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회전목마·점시킵·대관람차 등 신규 대형 조형물이다. 특히 실제 탑승이 가능한 회전목마 포토존과 직접 들어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점시킵 포토존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인생샷 명소'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나비생태관 내에 '명품분재 전시관'이 신설되고, '국향대

전 역사관'도 함께 조성돼 제1회부터 제21회까지의 국향대전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이를 통해 함평 국향대전의 전통과 발전 과정을 되짚으며, 국화의 예술성과 함평 국화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와 예술,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축제"라며 "방문객들이 마치 마법의 나라에 들어온 듯한 감동과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지난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과 함께 축제 콘텐츠 대상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확립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농업 기술센터 디지털농업교육장에서 '스마트팜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통한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팜 핵심 기술 이해 및 현장 적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 13명을 대상으로 총 8시간(2회차) 과정으로 운영했다.

특히 첫날에는 나주시의회 흥영섭 의

## 나주시, '스마트팜 현장전문가 양성교육' 성료

### 스마트팜 현장 적용 역량 강화... 디지털 농업 실현 전문가 양성

원이 직접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정보와 스마트팜을 활용한 스마트팜 자동 환경제어 시스템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팜의 기초가 되는 전기회로 이해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도 함께 전했다.

## 나주시, '스마트팜 현장전문가 양성교육' 성료

### 스마트팜 현장 적용 역량 강화... 디지털 농업 실현 전문가 양성

또 ㈜우성스마트팜 양창환 이사가 강의에 나서 스마트팜 센서와 양액기 유지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센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장비 점검 및 교체 요령, 양액 공급 시스템의 최적화 방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 운영 기술을 교육했다. 둘째 날에는 첫날 교육에서 다룬 전기회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습이 이어졌다.

양창환 강사는 농업용 전기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제어기기 구성과 회로 설계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직접 스마트팜 설비의 전기제어를 체험하도록 지도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전기 지식과 제어 기술을 익히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무안군,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 11월 1~2일 개최

### 무안 빨낙지거리에서 펼쳐지는 맛·흥·체험의 향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1월 1, 2일 이틀간 「갯도갯벌의 선물! 무안낙지의 맛 있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무안읍 빨낙지거리 및 중앙로 일원에서 제3회 무안갯벌낙지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첫날에는 일반농산어촌 성과발표회 '난리난리', 군민가요제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난타 공연과 함께, 미스트롯 출신 가수 서지오, 미스트롯 출신 가수 박경덕 등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주무대에서는 어린이 즉석 낙지잡기, 낙지 경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체험존에서는 컬러 비눗방울놀이, 캐

릭터 바람개비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존에는 무안사생대회 수상작, 낙지 생애 전시, 포토존이 마련되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중앙로 일원에서는 색색 버스킹 공연, 마술 버블쇼 등 거리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무안 낙지와 감·장어·새우 등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김산 군수는 "가을철 최고의 보양식이자 빨밭의 산삼이라 불리는 무안 낙지를 비롯해, '집 나간 머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와 제철 새우 등 풍성한 별미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고흥군, 오는 25일 '녹동항 드론쇼 폐막식' 개최

### 1500대 드론과 멀티미디어 해상불꽃이 수놓는 화려한 피날레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0월 25일(토) 저녁 8시,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2025 녹동항 드론쇼 폐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이어진 드론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리로, 1500대 군집 드론과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함께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군민과 관광객의 참여로 성황을 이룬 드론쇼 사진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스마트폰 사진과 일반사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10명의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총 4백만 원 상당의 고흥사

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1500대 드론과 레이저 빔을 활용한 해상 불꽃, 음악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며 "10월 25일 많은 분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녹동항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도리 일원에서 열리는 고흥유자축제장에서 드론쇼 특별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062-525-9775

## 순천시, 25~26일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 교감 치유도시 지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5일(토), 26일(일) 양일간 오전그린광장에서 반려동물은 물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2025년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개(犬)더, 순천'이란 주제로, 스포츠 중심의 '헬스 투게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투게더', 함께 공존하는 '해피 투게더'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반려견 스포츠대회다. 25일에는 전남 최초로 세계애견연맹(FCI) 공인을 받은 FCI 국제애질리티대회가 열려 전국의 실력 있는 팀이 겨룰 예정이다. 26일에는 한국애견연맹(KKF) 주관으로 일반 반려인들도 참여 가능한 KKF 애질리티 아마추어대회를 연다. 또한 아시아 국가대표 애질리티 시범경기도 선보여, 그동안 지역에서 보기 힘들었던 세계 수준의 기술과 화려한 경기력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스탬프투어 ▲반려견올림픽 ▲어린이 훈련사체험 ▲반려견 인수공통 전염병 4종 무료검사 ▲VR동물원 ▲이색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 전시 ▲펫티켓 골든벨 ▲개똥교환소 ▲반려동물 교감캠 ▲펫로스 상담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애니멀 필름페스타'와 '댕댕순전'을 동시에 개최하여 문화·예술·스포츠·산업이 어우러진 반려문화 대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기존 체험과 경험 중심의 '즐거움' 행사에서 나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며 치유와 회복을 '느끼는' 행사로 추진할 것"이라며, "반려동물이 가족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치유의 동반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반려문화를 즐기고 공감하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